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News Letter

제6차 한미 NCG 회의 및 한국 SSN 건조 관련 발족회의



2026년 6월 11일 한국과 미국은 제6차 한미 핵협의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회의를 개최하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첫째, 한국 국방부 김홍철 정책실장은 한국 대표단을 이끌었고, 미국 로버트 소퍼 핵 확장과 대량살상무기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둘째, 양국은 이번 회의가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증강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 확장억제를 위해 재래식 수단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셋째, 양국은 북한 핵 위협 관련 정보 공유, 핵 위기 상황 발생 시 협의 절차, 한미 간 재래식 핵융합(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CNI) 수행 절차 및 위기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 상황에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넷째, 양국은 한미 CNI 체계 발전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한미 핵협의그룹 운영 매뉴얼 문서에 서명하였다.

다섯째, 양국은 이번 회의의 결과와 한미 핵 협의그룹 운영 매뉴얼 합의 내용을 올해 후반에 개최되는 제58차 한미 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6월 2일~3일간 한국과 미국 정부 대표단은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 안보 분야 관련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간 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한미 간 발족회의에서 엘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국방부)에서 참가한 실무 대표들을 이끌었고, 한국 박현수 외교부 제1차관은 한국 정부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이끌었다.

국내외 매체들은 이번 한미 간 발족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 시트에서 언급한 안보 관련 합의 사항인 우라늄 농축, 원전 폐기물 재처리 및 한국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SSN) 건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중심으로 협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SSN 확보 과정에서 필요한 핵연료 확보, 핵물질 관리 및 국제 핵비확산 체제 준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1월 13일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가 발표된 이후 양국은 올해 초 실무 협의 발족회의를 개최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양국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 조정되면서 지난 6월 2일~3일 서울에서 이번 발족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수차례 걸쳐 한국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고 독자형 SSN을 건조하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며, 핵 비확산 원칙(Non Proliferation Treaty: NPT)을 철저히 준수할 것임을 대내외에 선언하였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발족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선언한 핵물질의 핵무기 개발 비전용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독자형 SSN에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검증 방안과 한국이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하기 위해 거쳐야 할 미국 국내법적 절차 등에 대해 협의하였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안보 전문가들은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한국 정부가 미국의 동의 없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고, 원전 연료로 사용되는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형 SSN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을 SSN 건조 조건에 맞게 개정하거나 별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발족회의가 단순한 상호 인사와 교류 수준을 넘어 관련 분야에 대한 양국 실무자 간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식 논의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담은 로드맵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 단계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26일 진해 잠수함 사령부에서 ‘제1차 미래 국방전략 위원회’를 개최하여 북한 잠수함 기반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을 억제하기 위해 2030년대 한국 독자형 SSN을 건조한다는 ‘장보고 N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SSN 건조를 위해 호주가 독자형 SSN 건조와 관련하여 2024년 미국과 체결한 ‘미국-호주 간 해군 핵 추진 협정’ 사례와 유사하게, 핵연료 공급과 관리, 기술 협력, 핵물질의 비전용 검증 등을 위한 별도의 한미 간 협력 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종합적으로 제6차 한미 NCG 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번 한미 간 SSN 관련 발족회의는 한국의 독자형 SSN 건조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력 협력, 핵연료 확보, 비확산 검증 체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한미 간 본격적인 실무협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 이미지 설명 :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 * 이미지 출처 : <https://www.mnd.go.kr/sites/mnd/index.do>
- * 내용 출처 : Korea JoongAng Daily, June 4, 2026; NK News, June 5, 2026; US, Joint Statement, June 11, 2026.
- *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